

노인의 여가활동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he Factors Influenced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박경란** · 이영숙
인제대학교 · 군산대학교

Park, Kyung Rhan · Yi, Yeong Sug
Inje University · Kus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The factors considered were leisure opportunities, leisure motiv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some background variables. Subjects were 291 elderly persons who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variables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was affected by leisure opportunities, leisure motivation, leisure satisfaction, gender, and education. 2) Leisure satisfaction influenced by leisure opportunities, motivation, health, and financial condition. 3) Leisure opportunities and motivation had effects on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indirectly via leisure satisfaction. 4) Also, status of health and financial condition of the elderly had an indirect effect on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via leisure motivation.

Key Words : leisure opportunities, leisure motivation,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I. 연구의 목적

오늘날 여가는 사회경제적 수준향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어느 연령층에서나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문숙제 외, 2005). 특히 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일생 중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노후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노년기 여가 문제가 노인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년기 여가는 명백히 생활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즉 노년기는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난 시기로 대부분의 시간과 활동이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시간을 제외한 하루 시간의 전부가 여가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여생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가활동을 어떻게

생활화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박미석, 2002; 홍성희, 1998).

이와 관련하여 노인여가를 고찰해 온 많은 연구문헌들은 일관되게 여가참여와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은 노인의 심리적 안녕과 생활만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은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며(Leitner et al., 1996), 또한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이 증진되고(Rowe & Kann, 1998), 사회적 통합(Burch & Hamilton-Smith, 1991; Berg et al., 2001) 및 자아존중감(홍성희, 1998)이 높아지고, 나아가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나항진, 2002; 송원익, 2004; Hemingway, 1996)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여가활동은 대부분 시간 채우기 또는 시간 보내기의 성격이 강하다. 여가생활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주로 집안에서 혹은 제한된 범

* 본 논문은 2005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Park, Kyung Rhan
Tel: 055) 320-3240, Fax: 055) 321-9550
E-mail: homerhan@inje.ac.kr

위 안에서 단조롭고 무료한 여가를 보내는 소극적·수동적인 경향을 보인다(나항진, 2004; 박미석, 2004; 이윤정, 2003). 더욱이 현재의 노인들은 생활의 여유를 갖지 못했던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낸 세대이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즐겼던 경험, 여가활동 기술의 부족 등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은 결국 여가활동이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은 노인들이 일상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반대로 주어진 많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가활동이 오히려 노인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김애련, 한내창, 1997). 따라서 노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족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은 무엇이며, 여가참여를 가로막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점차 자립적이 되어가고 있으며(통계청, 2005), 향후의 노인세대는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여가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노년기 여가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여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7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학자들은 여가참여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를 조사해 왔으며, 그 대부분은 주로 여가참여와 노인의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왔다(Slegenthaler, 1996). 이에 비해 여가참여에 대한 동기나 또는 여가참여 활성화 방법을 규명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년기 여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가활동참여가 여가만족(예: 여호근, 김대환, 2005)이나 노년기 생애만족도(김애련, 한내창, 1997), 행복감(김경호, 2003), 고독감(원형중, 1994) 등 생활의 질에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었으나 여가활동참여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예: 이유리, 박미석, 2006)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만족을 통해 여가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여가기회, 여가동기, 여가만족 및 여가활동 참여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여가기회와 여가동기에 대한 일차적 인식에 따라 여가만족이나 여가참여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여가활동 능력 및 여가환경을 향상시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노인들의 여가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II. 관련문헌 고찰

1. 여가의 개념

여가란 일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일에 비하여 임의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학자에 따라 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장인협·최성재, 2002). 관련학자들의 여가개념을 살펴보면, Leitner et al.(1996)은 “개인이 일을 하지 않거나 기타 생활유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동안의 자유로운 시간이나 의무감이 없는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김광득(1990)은 포괄적 여가개념 요소로 시간적 요소(잔여시간, 잉여시간, 자유재량적 시간), 활동적 요소(휴식, 기분전환, 자기계발), 상태적 요소(자유정신, 마음의 태도, 영혼의 상태), 제도적 요소(사회적 특징, 타인의 기여, 노동상관성)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Kelly(1996)는 ‘시간’, ‘활동’, ‘마음상태’의 세 요소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여가에 대해 갖는 의미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McPherson(1991)은 성, 인종, 교육, 결혼 상태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인들이 개인이 여가에 부여하는 인식과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Slegenthaler, 1996 재인용). 이외에도 연령요소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여 노년기의 여가는 개념과 활동특성에 있어서 청장년기 여가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박미석·이유리, 2003). 실제로 Allen & Chin-Sang(1990)의 조사에서 노인들은 여가를 ① 자유로운 시간, 즐거운 시간, 나를 위한 시간 ② 휴식을 취하는 것, 인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 ③ 일하지 않는 것 ④ 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여가는 긴 시간을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보내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개념을 “의무감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에 노인 개인이 선택하여 행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여가동기·여가기회

동기란 개인이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욕구, 바램 또는 충동이다. 즉 동기는 개인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활동에 주의를 돌리게 하며,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내적 상태와 과정을 내포한다(Zanden,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동

기는 여가참여를 시작하게 하고, 관리하고,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여가동기에 관한 문헌들은 여가동기의 여러 유형이 특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Losier et al., 1993).

많은 심리학자들은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외재적 동기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것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외부의 것에 의해 통제된다. 반면 내재적 동기는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내적 보상은 활동자체에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를 갖게 한다(Zanden, 1997). Deci & Ryan(1985)은 자기결정에 대한 지각정도에 따라 동기는 세 형태로 분류된다고 제시하였다. 첫째는 내재적(intrinsic) 동기로, 이것은 가장 강한 자기결정 유형이며 사람들은 재미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 내재적 동기를 갖는다고 말한다. 둘째, 외재적(extrinsic) 동기로 사람들이 활동 그 자체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기결정 외재적 동기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비자기결정 외재적 동기로 나누어진다. 셋째, 무동기(amotivation)는 동기가 없는 행동으로 가장 약한 자기결정 유형이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들은 무능력과 통제의 부족함을 경험한다. 이러한 Deci & Ryan(1985)의 자기결정 정도에 따른 동기형태는 노인의 여가동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Losier et al., 1993), 점차적으로 노인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로 여가생활 자체를 중시하고, 여가동기의 면에서도 단순한 기분전환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실현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신한종합연구소, 1994) 전망되고 있다.

여가기회 지각은 어떤 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개인의 지각으로서 정의되는데(Losier et al., 1993), 관련문헌들은 여가기회에 대한 지각은 개인의 여가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즉 여가기회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자기결정 동기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많거나,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면 노인들은 자기결정에 의한 동기로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Deci & Ryan(1985)은 만약 개인에게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여가기회가 제공되고, 자신이 이 기회를 선택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각한다면 활동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 동기가 유지되거나 또는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Losier et al.(1993)의 여가동기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여가기회에 대한 노인의 지각은 내재적 동기 및 자기결정

외재적 동기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가기회가 많다고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자기결정 여가동기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역할기회에 대한 개인의 지각정도에 따라 여가에 대한 자기결정 동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인협, 최성재(2002)도 노인이 많거나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곳에 주거한다면 노인의 활동 참여범위는 넓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3. 여가만족

여가만족은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정의된다(Beard & Ragheb, 1980). 통계청(2004)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비율(44.0%)보다 불만족하는 비율(56.0%)이 더 높았으며, 여가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41.6%)과 건강·체력부족(35.3%)을 꼽았고, 교통혼잡(2.1%), 여가시설 부족(1.8%), 여가정보부족(0.4%)에 대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연구들 간에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여가생활만족이 더 높다는 결과(한상덕, 2002)와 반대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여가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결과(박미석, 2004), 그리고 남녀 노인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김성연, 박미석, 2000)로 나누어진다. 노인의 학력에 따른 분석에서도 홍성희(1998), 이숙자(2001)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낮았으나, 정미자(1997), 한상덕(2002)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박미석(2004)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무학의 노인들의 여가생활만족이 가장 높았던 반면, 김성연, 박미석(2000)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홍성희(1998)는 거주지역은 여가만족도의 주요 변인이 아니라고 한 반면, 박미석(2004)은 서울경기지역 거주 노인들이 다른 지역의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여가생활 만족이 더 높다고 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에서도 원형중(1994)의 연구에서는 건강은 여가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생활수준을 용돈수준·월평균소득·총자산 등을 모두 포함해서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연, 박미석, 2000; 원형중, 1994; 정미자, 1997;

홍성희, 1998).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만족도에서는 여가참여의 동기가 여가만족도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원형중(1994)은 노인의 여가참여 동기가 적극적이며, 여가참여시 몰입도가 높은 특성을 지닐 때 여가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Losier et al.(1993)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여가만족은 자기결정 형태의 두 유형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와는 긍정적으로, 비자기결정 여가동기와 무여가동기와는 부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선에, 한성열(2002)의 연구에서는 정서·심리적 안정추구 동기로 여가를 경험한 개인이 자기개발·자기향상 동기로 여가를 경험한 개인보다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동기에 따라 여가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Slegenthaler(1996)는 사람들이 여가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시 자유의식과 통제의식을 경험하는데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에의 참여는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결정 동기를 가진 여가참여자는 보다 만족한 여가를 경험하며, 반면 비자기결정 여가참여자는 덜 만족한 여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측컨대 여가에 참여하는 노인의 동기유형에 따라 여가경험이 상이할 것이며, 그 결과 여가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된다.

4. 여가활동참여

여가활동참여는 개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시간을 분석한 박충선(1998)은 노년층의 일일 평균 여가시간이 10.5시간으로 노후의 대부분의 생활시간이 여가시간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발표된 박미석, 이유리(200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년기 전체 여가활동시간이 6시간 22분 정도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TV시청(27.3%)과 낮잠 등과 같은 단순 휴식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경향이었으며(박미석, 2004), 60-74세 노인의 41.5%, 75세 이상 노인의 53.3%가 지역사회 여가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수민, 200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활동참여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 비교에서 남자노인(11.65시간)이 여자노인(9.85시간)보다 여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박충선, 1998), 홍성희, 김성희(1997)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여가활동참여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Losier et al.(1993)은 성별은 여가참여의 결정요인이며,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

들보다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노인의 학력도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여(안수민, 2004; 이선미, 1991),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여가참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노인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여가활동참여도에 차이를 보여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가 기타지역 거주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박미석, 2004; 홍성희, 1988), 이는 지역에 따른 여가경험과 여가기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홍성희, 1998)으로 지적되었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여가활동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안수민, 2004; 홍성희, 1998), 건강하다고 느끼는 노인은 여가참여시 행동자체로의 몰입이 강한 경향이었다(원형중, 1994). 노인의 생활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참여에 대해 장인협, 최성재(2002)는 노인의 경제적 사정은 여가활동참여를 위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령기에의 여가활동의 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전국적 조사에서도(통계청, 2004) 가장 높은 여가활동의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원형중(1994),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는 월평균용돈은 여가활동참여도에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제력이 약화된 노인들이 비용제약을 받지 않고도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여가동기에 따른 여가참여를 살펴보면, 개인이 갖는 여가동기에 따라 여가참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Losier et al.(1993)은 여가동기는 여가참여의 결정요인임을 밝혔으며, 또한 최근 여가계약·여가동기·여가참여간의 관계를 고찰한 이유리, 박미석(2006)도 노인의 여가동기는 여가참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여가와 관련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구조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태도, 자기결정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Iso-Ahola(1989) 역시 선택의 자유감과 통제감 그리고 내적인 보상은 참여빈도와 몰입도에 주요한 결정인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이유리, 박미석, 2006 재인용). 따라서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의해 여가활동을 선택 하는가 또는 비자기결정에 의해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여가경험이 상이할 것이며 이로 인해 여가참여도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자기결정에 의한 여가동기를 높게 가질수록 여가참여에 더욱 적극적이 될 것으로 가정된다.

여가만족과 여가활동참여간의 관계를 보면, Losier et al.(1993)은 여가만족은 여가참여와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예측변인이라고 하면서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만족감은 여가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은 심리적 욕구만족을 충족시킬 것이며(Tinsley & Tinsley, 1986), 이러한 심리적 만족이 여가활동참여에 더욱 적극적이 되도록 이끌 것이다. 이와 다르게 많은 선행연구들(예: 홍성희, 1998)은 여가활동참여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어 여가만족과 여가활동참여는 상호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여부에 따라 여가참여가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참여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분포는 만 55세부터 86세로 평균연령은 62.8세이며, 성별로는 남성 106명 여성 185명이다. 이들의 학력은 중·고졸 49.3%, 초등졸 이하 32.4%, 대졸 이상 18.3%의 순이며, 거주지역은 대도시 22.0%, 중소도시 61.9%, 읍면지역 16.2%이다. 노인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 61.2%, '충족한편' 26.1%, '어려운편' 12.7%이며, 건강상태는 '보통' 40.9%, '나쁜 편' 30.9%, '좋은 편' 28.1%로 비교적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 조사를 통해 2006년 5월 중순부터 약 보름간에 걸쳐 가족학 전공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부 노인들에게 조사가 병행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앞의 연구목적과 관련문헌의 고찰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여가기회, 여가동기, 여가만족 및 여가활동참여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여가기회, 여가동기, 여가만족 및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 요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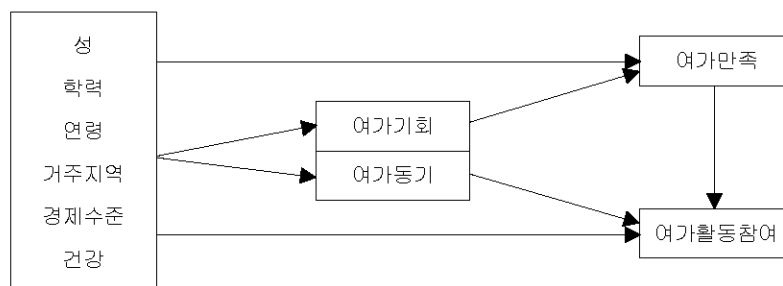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55세 이상의 남녀노인 291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녀결혼 및 은퇴로 55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노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최성재, 장인협, 2002) 만 55세를 노인연령기준으로

3. 측정도구

1) 여가동기

여가동기는 Vallerand & O'Connor(1991)의 MES(The Motivation in the Elderly Scale)가운데 여가하위척도를 사용한 Losier et al.(1993)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여가동기를 자기결정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연속체로 보고 4가지 유형, 즉 내재적 동기(재미있고 즐거워서 하는 경우), 자기결정 외재적동기(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므로 하는 경우), 비자기결정 외재적동기(다른 사람들이 권해서 하는 경우), 무동기(별다른 이유 없이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개 여가활동에 대한 각각의 네 가지 여가동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조사되었다(Cronbach' α = .829). 그리고 경로분석을 위한 개인의 여가동기 지수는 연속선상에 있는 여가동기 네 가지 유형 각각에 가중치를 주고 이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즉 선행연구(Losier et al., 1993)를 참고로 하여 내재적 여가동기에는 +2점, 자기결



[그림 1] 연구모형

정 외재적동기에는 +1점, 비자기결정 외재적동기에는 -1점, 무동기에는 -2점을 부여한 후 총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되었다. 따라서 정적 점수(최고 +8점)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에 의한 여가동기가 높은 것으로, 부적 점수(최저 -8점)가 높을수록 비자기결정에 의한 여가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여가기회

여가기회에 대한 조사는 거주지역에서 제공되는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정보정도를 묻는 2개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기회가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Cronbach' α = .764).

3) 여가만족

여가만족 정도는 홍성희(1998), 박미석(2004)의 연구와 동일하게 현재의 여가생활에 대한 노인의 평가를 5점 Likert 척도(매우 불만족하다-매우 만족하다)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4) 여가활동참여

여가활동참여는 Lennartsson & Silverstein(2001)과 정경희 외(2005)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한 총 20문항을 5점 Likert 척도(매우 자주한다-전혀 안한다)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 α = .781).

4. 자료분석

노인의 여가동기, 여가기회, 여가만족, 여가참여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여가동기, 여가기회, 여가만족,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에 기초한 인과모형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와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Durbin-Watson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여가동기, 여가기회, 여가만족, 여가활동참여의 전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여가기회, 여가동기, 여가만족, 여가활동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노인여가의 전반적 경향

변인	평균	SD	점수범위
여가기회	2.27	.81	1~4
여가동기	2.69	.74	-8~+8
여가만족	3.12	.89	1~5
여가활동참여	2.75	.48	1~5

우선, 노인들의 여가기회는 4점 만점에 평균은 2.27점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노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여가활동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여러 연구(박미석, 2004; 정경희 외, 2005)에서 일관되게 지적되어 온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혀주고 있다.

노인들의 여가동기는 평균 약 2.69점(-8점~+8점)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하는 여가활동은 '즐겁고 재미나서'하는 자기결정에 의한 내재적 동기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권해서'하는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이였다. 이는 시설거주 노인들(이유리, 박미석, 2006)의 여가동기보다는 다소 자기결정에 의한 동기가 높은 수준이나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는 외국의 노인들(Losier et al., 1993)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노인들의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12점의 '보통' 수준이었으며, 여가활동참여는 2.75점(5점 만점)으로 '거의 안하는'에서 '가끔'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본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해하기 보다는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높다고 밝힌 통계청(2005)의 결과와 노후의 대부분의 시간은 여가시간이지만(박충선, 1998) 여가활동에의 참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나향진(2004)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Losier et al.(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 외국 노인들의 여가활동만족도(7점 만점에서 평균 5.5점) 및 여가활동참여도(5점 만점에서 평균 3.8점)에는 월

<표 2> 여가동기 및 여가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

	여가동기		여가기회	
	B	β	B	β
성 ^a	-1.26	-.05	.37	.11
연령	-.18	-.12	.01	.05
학력 ^{1b}	2.89	.13	.13	.04
학력 ^{2c}	.05	.00	.27	.06
거주지역 ^d	.07	.00	.26	.07
건강	1.64	.14*	.33	.20*
경제수준	2.40	.15*	-.07	-.03
상수	9.45		2.46*	
F	3.79**		1.96*	
R ²	.107		.053	
Adj. R ²	.079		.025	
Durbin-Watson	1.62		1.66	

*p<.05 **p<.01

^a:1=여자, ^b:1=중·고졸, ^c:1=전문대·대졸, ^d:1=중소도시이하지역

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Lawton, 1994)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여가동기 및 여가기회의 결정요인

노인들의 여가동기 및 여가기회는 분석된 6개 배경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노인의 여가동기는 건강(β=.14)과 주관적 생활수준(β=.15)에 의해서, 여가기회는 건강(β=.20)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건강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은 노인일수록 자기결정에 의한 여가동기가 높으며,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관심을 유지하는데 좋은 건강과 경제적 자원을 가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3. 여가만족의 결정요인

노인의 여가만족 및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인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과분석에 앞서 노인의 여가활동참여, 여가동기, 여가기회, 여가만족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표 3), 여가동기(r=.385)와 여가기회(r=.347), 여가만족(r=.307)은 모두 여가참여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에 여가동기(r=.270)와 여가기회(r=.231)도

<표 3>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여가동기	1.000			
2. 여가기회	.144*	1.000		
3. 여가만족	.270***	.231***	1.000	
4. 여가참여	.385***	.347***	.307***	1.000

*p<.05 **p<.01 ***p<.001

<표 4> 여가만족 및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여가만족		여가활동참여	
	B	β	B	β
성 ^a	-.14	-.07	2.13	.11*
연령	.00	.00	-.11	-1.60
학력 ¹ ^b	.00	.00	3.08	.17*
학력 ² ^c	.12	.00	6.16	.28***
거주지역 ^d	.13	.00	1.94	.10
건강	.13	.15*	.62	.07
경제수준	.28	.23***	-.56	-.70
여가동기	.01	.16**	.19	.24***
여가기회	.06	.11*	.97	.17**
여가만족			1.64	.16**
상수	1.33*		39.78***	
F	6.62***		11.20***	
R ²	.215		.348	
Adj. R ²	.182		.317	
Durbin-Watson	2.09		1.76	

*p<.05 **p<.01 ***p<.001

^a:1=여자, ^b:1=중·고졸, ^c:1=전문대·대졸, ^d:1=중소도시이하지역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동기와 여가 기회도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상관계수는 .14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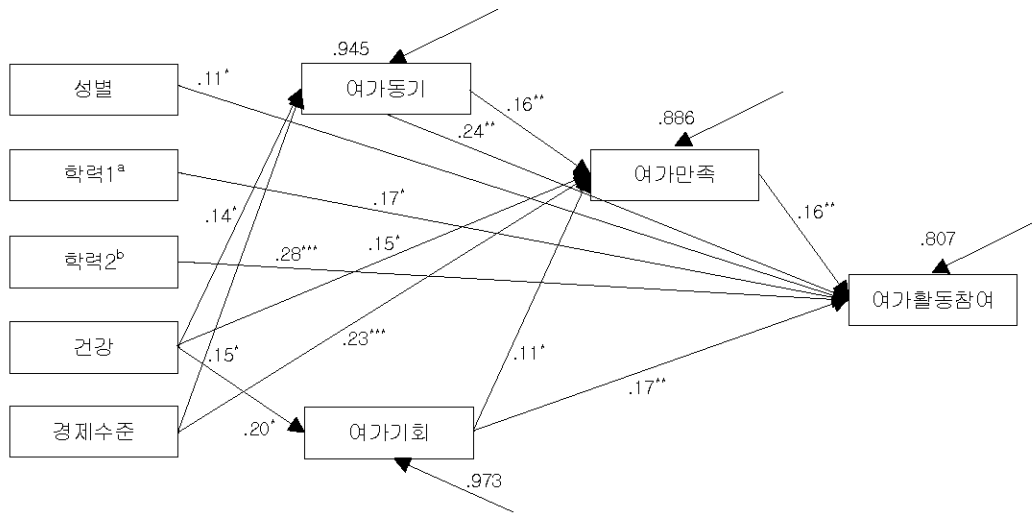
노인들의 여가만족은, <표 4>에서와 같이, 건강, 경제 수준, 여가동기 및 여가기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beta=.23$), 내재적 여가동기가 높은 노인일수록($\beta=.16$), 건강이 좋은 노인일수록($\beta=.15$), 여가기회가 많은 노인일수록($\beta=.11$) 여가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변수에 의한 여가만족의 설명력은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이 여가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는 이유로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건강 또는 체력부족(38.3%)으로 나타난 통계청(2004) 자료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자발성을 지닌 적극적인 여가참여가 노인의 전반적 생활만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원형중(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4. 여가활동참여의 결정요인

최종 종속변수인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 학력, 여가동기, 여가기회, 여가만족 등 5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즉 자기결정에 의한 여

가동기를 갖는 노인일수록($\beta=.24$),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beta=.17$, $\beta=.28$), 여가기회가 많은 노인일수록($\beta=.17$), 여가만족을 높게 평가하는 노인일수록($\beta=.16$), 여자노인들이 남자노인들보다($\beta=.11$) 여가활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변수는 여가활동참여 총 변량의 31.7%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여가동기가 여가활동 참여에 가장 큰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여가동기가 높을수록 여가참여가 높다고 밝힌 이유리, 박미석(2006), Losier et al.(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학력이 높은 노인들(안수민, 2004; 이선미, 1991), 여자노인들, 여가만족이 높은 노인들(Losier et al., 1993)이 상대적으로 여가참여가 높다는 결과도 관련문헌들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이 대도시일수록 여가활동참여가 높다고 밝힌 홍성희(1998)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표 2> <표 4>의 회귀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와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가설적인 인과모형을 수정한 경로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주: a:1=중·고졸, b: 1=전문대·대졸
 .05 이상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경로계수만 제시한 것임.
 * P <.05 ** P <.01 *** P <.001

[그림 2] 여가활동참여의 인과모형 분석

V. 논의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결과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참여와 긍정적으로 관련되며 주요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여가생활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여가참여율이 높은 경향이였다. 명백히 사람들은 어떤 활동으로부터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더욱 원하게 될 것이며, 그 활동을 유지하고 지속하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여가활동에서 경험되는 긍정적인 감정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가참여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본 가설과는 반대로 여가참여정도가 여가만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간주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과 여가참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적인 관계이므로(Kelly & Ross, 1989) 연구의 목적상 여가만족이 여가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여가동기는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동기를 갖고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여가동기가 약한 노인들에 비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선행연구(이유리, 박미석, 200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들은 참여하는 여가활동이나 여가시간이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된다고 생각될 때 여가활동에 자발적이 될 것이며, 반대로 외재적인 동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가활동의 지속은 물론 참여를 억제시킬 것이다. 또한 여가동기는 여가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Deci & Ryan(1991; Losier et al., 1993 재인용)의 지적대로, 자기결정 형태의 여가동기는 많은 긍정적인 결과, 예를 들어, 보다 좋은 정신적 건강과 높은 자존감,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만족감을 초래할 것이므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여가시간을 갖는가의 문제는 노년기 성공적인 여가생활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인식시켜준다고 하겠다.

여가기회 역시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동기와 동일하게 여가만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자신이 참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이나 여가활동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가활동이 증가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노인의 건강은 여가동기, 여가기회, 여가만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여가동기와 여가기회의 양 변수를 통해 여가만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건강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자신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여가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지역사회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그 결과 만족한 여가생활을 갖는 경향이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이 여가활동참여를 높여 줄 것이라고 예상한 본 연구의 가정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원형중, 1994; 홍성희, 김성희, 1997)에서 노인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여가활동참여도의 주요 변수라고 지적되고 있으나 이 같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건강한 노인 일지라도 노인의 성격특성(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이나 노인 개개인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유형(사회적인가 단독적인가)에 따라서 여가참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의 경제상태 역시 여가동기와 여가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여가활동참여에는 여가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 현 노인 세대들의 여가생활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나(통계청, 2004),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비용제약을 받지 않는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노인의 성별과 학력은 여가동기, 여가기회, 여가만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나 여가활동참여와는 정적 관계로서 여자노인들이,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성별(박미석, 이유리, 2003)과 학력(정경희 외, 2005)에 따라 참여하는 여가활동유형이 다르겠으나 전통적으로 지위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남성들보다는 대인관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들이 노후에 더욱 활발한 여가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학력이 높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여가대도가 적극적이면서 여가계약도 적을 것이므로(홍성희, 1998) 여가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노인의 현 거주지역은 여가활동참여의 결정요인으로 작용되지 못하였다. 중소도시·농촌 지역 노인들은 대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해 농사일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제한, 교통 및 이동문제로 인한 여가시설 접근의 어려움,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의 부족 등의 여러 이유로 지역에 따른 여가활동참여도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이 지지받지 못하였는데, 추후 이에 대한 재 고찰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에서 여가활동참여는 31.7%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기회와 여가동기의 양 측면에서 여가활동 참여정도를 살펴보았으나, 노년

기에 증가되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기타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이 노인들의 여가활동 선택 및 참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여가계약 측면이 함께 고려될 때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설명력을 더욱 높일 수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여가활동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여가동기, 여가기회, 여가만족, 여가활동참여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55세 이상 노인 291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인들의 여가기회는 4점 만점에 평균은 2.27점, 여가동기는 -8점~+8점 분포에서 평균 2.69점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평가한 자신의 여가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12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여가활동참여는 2.75점으로 비교적 소극적인 편이었다.

둘째, 노인들의 여가동기는 건강과 주관적 경제수준에 의해서, 여가기회는 건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건강이 좋은 노인일수록 자기결정에 의한 여가동기와 여가기회가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들의 여가만족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내재적 여가동기가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이 좋은 노인일수록, 여가기회가 많은 노인일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넷째,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학력, 여가동기, 여가기회, 여가만족 등 5개 변수이며, 전반적으로 자기결정에 의한 여가동기를 갖는 노인들, 학력이 높은 노인들, 여가기회가 많은 노인들, 여가생활만족이 높은 노인들, 그리고 여자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여가활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 경제수준, 여가동기, 여가기회는 여가활동참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여가기회에 대해 노인들은 대체로 지역사회의 여가활동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이었다. 여가동기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약하며, 여가생활도 '보통' 정도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Losier et al., 1993)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노년기에 여가생활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생활목표 및 영역으로 확실히 정착하고, 여가활동의 의미가 자아실현의 구체적 매개체로 나타나는 본격적인 여가시대가 펼쳐 질 것이므로 노인의 여가활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가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노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특히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하고 참여하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해야만 한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여가프로그램은 주로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여러 측면에서 현재 노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여가태도 및 욕구를 가질 것이므로 노인의 건강, 경제상태, 학력수준, 성격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해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여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보다 높은 여가동기를 가지고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인의 여가적성에 대한 사전 조사나 상담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노인참여자의 배경분석, 건강테스트, 기능능력측정, 성격검사 등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자료의 활용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 노인의 여가적성을 조사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들 편에서는 개인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후기간의 증가,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등으로 모든 자녀를 출가시킨 후,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 후 노후에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질적인 여가생활을 위해 노인 스스로 적극적인 여가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중년기부터 여가에 대한 설계, 계획, 준비가 필요하며 여가교육을 통한 여가사회화가 필요하다. 여가사회화는 여가활동의 능력을 향상시켜 노령기에 있어서도 중년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여가활동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을 더하여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장인협, 최성재, 2002).

다섯째, 따라서 노인여가에 대한 연구도 노인 수요자에게 적합한 정책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남녀노인의 비교, 동농지역 노인의 비교,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비교 등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적으로 표집 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개념을 '사회적 노인'으로 조작화 하여 55세 이상 된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나이가 많은 노인과 적은 노인 간의 세밀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점점 노인의 건강 및 교육수준의 향상되고 이에 따른 생활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의 연령범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게 고찰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여가동기, 여가기회와 여가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외국에서 사용한 질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여가기회, 여가동기, 여가만족, 여가활동참여

참 고 문 헌

- 김경호 (2003)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유형과 가족의 건강성, 무력감, 자긍심 및 행복감의 관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득 (1991) 현대여가론. 이론과 실제. 서울: 자유출판사.
- 김성연, 박미석 (2000) 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67-84.
- 김애련, 한내창 (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75-288.
- 나향진 (2002) 노인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장평 노인학교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향진 (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53-70.
- 문숙재, 윤소영, 차경옥, 천혜정 (2005) 여가문화와 가족. 서울: 신정.
- 박미석 (2002) 노년기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5), 133-146.
- 박미석 (2004)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선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231-251.

- 박미석, 이유리 (2003)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37-48.
- 박충선 (1998) 노년기의 생활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2), 30-46.
- 송원익 (2004) 도시근로자의 여가참여형태 및 제약이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한종합연구소(1994). 트렌드 21. 서울: 신한종합연구소.
- 안수민 (2004)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호근, 김대환 (2005) 여성의 여가활동참여, 여가만족,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부산 시민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68(1), 77-106.
- 원형중 (1994) 여가활동 참여가 수도권 거주 노인의 고독감, 여가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4(2), 90-104.
- 이선미 (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자 (2001)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유리, 박미석 (2006)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계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을 위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30.
- 이윤정 (2003) 노인의 여가생활시간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인협, 최성재 (2002)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나향진(2002).
-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정미자 (1997) 한국노인의 여가실태와 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선애, 한성열 (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8(2), 17-31.
- 통계청 (2004) 사회통계조사.
- 통계청 (2005) 사회통계조사(복지·안정·환경).
- 한상덕 (2002) 노인의 여가실태와 여가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 633-649.
- 홍성희 (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3.
- 홍성희, 김성희 (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계약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53-267.
- Allen, KR, Chin-Sang, V (1990) A lifetime of work: The context and meanings of leisure for aging black women. *The Gerontologist*, 30(6), 734-740.
- Beard, JG, Ragheb, M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30.
- Berg, EC, Trost, M, Schneider, IE, Allison, MT (2001) Dyadic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of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time, and gender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Leisure Sciences*, 23, 35-46.
- Burch, WR, HamiltonSmith, E (1991) Mapping a new frontier: Identifying, measuring, and valuing social cohesion benefits related to nonwork opportunities and activities. In BL, Driver, PJ, Brown, Peterson(eds.), *Benefits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 Deci, EL, Ryan, R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Hemingway, JL (1996) Emancipation Leisure: The recovery of freedom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 27-43.
- Kelly, JR, Ross, J-E (1989) Later-life leisure: Beginning a new agenda. *Leisure Sciences*, 11(1), 47-59.
- Kelly, JR (1996) *Leisure*(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Lawton, MP (1994) Personality and affective correlates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by older peop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 138-157.
- Leitner, MJ, Leither, SF, Associates (1996) *Leisure Enhancement*(2nd. ed.). New York: The Haworth Press
- Lennartsson, C, Silverstein, M (2001)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Does engagement with life enhance survival of elderly people in Sweden? The role of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The Journal of Gerontology: 56B*(6), S 335-342.
- Losier, GF, Bourque, PE, Ballerand, RJ (1993) A motivational model of leisur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2), 153-170.
- Rowe, JW, Kann, R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NY: Dell Publishing.
- Slegenthaler, KL (1996) Leisure and the elderly. *Parks & Recreation*, 31(1), 18-24.
- Tinsley, HE, Tinsley, DJ (1986) A theory of the attributes, benefits and causes of leisure

- experience. *Leisure Sciences*, 8, 1-45.
- Vallerand, RJ, O'Connor, BP (1991) Motivation in the elderly: A theoretical framework and some promising findings. *Canadian Psychology*, 30(3), 538-550.
- Zandan, JWV (1997) *Human development*(6th), New York: The McGraw-Hill Co., Inc.
- (2006. 12. 9 접수; 2007. 05. 29 채택)